

## 제주를 수호하던 봉수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언제 어디로 적이 침입할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섬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과거 많은 오름에 설치되었던 봉수대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나름의 노력이었다.



**봉수대길**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990 ~ 한림읍 상명리 832-1(약 1km)

**정월길**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413-3 ~ 한림읍 월령리 산18(약 1km)

**금능농공길**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7-5 ~ 한림읍 금능리 407-15(약 3.1km)

**월림로** |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41-6 ~ 한림읍 상명리 21(약 2.2km)

**명상로**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417-2 ~ 한림읍 상명리 2033-1(약 3.1km)

**조성로**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185-1 ~ 한림읍 상명리 121-1(약 1.3km)

**개오기길**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268-2 ~ 한림읍 협재리 802-3(약 2.1km)

**머들길**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355-1 ~ 한림읍 금능리 198-1(약 0.5km)

## 봉수대길 | 봉수대

봉수대길은 봉수대가 있었던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명월성로를 따라 남쪽으로 상명리에 이르면 느지리오름과 밝은오름 사이를 지나는 **봉수대길**이 나온다. 조선시대 느지리오름 정상에는 만조봉수가 있었다. 그래서 만조봉 또는 망오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봉수대는 주변의 시야가 좋은 오름 정상에 세워진 통신시설이다. 오늘날처럼 간단히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없던 옛날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 소식을 전해야 했다. 하지만 왜적이 침입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빠른 연락체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봉수대를 설치해 불빛과 연기로 빠르게 소식을 전했다. 봉수대에는 24시간 병사들이 주둔해 주변을 감시했다. 밤에는 불빛으로,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데 평상시에는 1개를, 적이 나타나면 2개를, 해안 가까이 접근을 하면 3개를, 상륙을 했을 때는 4개를,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5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려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달려가 구전으로 전해야 했다. 제주 중산간 지대와 해안가의 오름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안가에 설치된 연대와 서로 소통하면서 적의 위협에서 제주의 안전을 지켰다. 제주목사는 봉수대와 연대 덕분에 관아에 앉아서도 섬 구석의 위협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전화가 발명되고,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봉수대의 역할을 사라졌지만 섬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썼던 그 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느지리오름

## 정월길 | 정월오름

금능남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보면 **정월길**이 이어진다. 이 길은 인근에 있는 정월오름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정월오름은 정월이오름, 정월악 등으로 불렸는데 오름의 형태가 보름달 같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하나 정확한 유래는 전해오지 않는다. 정월오름 인근에는 용암동굴인 한들굴이 있는데 정월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한들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오래 전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유적으로 말의 치아도 발견되었다. 제주의 말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에는 삼성신화의 벽랑국 삼공주가 망

아지를 신고 왔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막연히 탐라국 시대부터 말이 있었다고만 추측할 뿐 정확히 언제부터 제주에 말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들굴에서 발견된 말의 치아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제주에 말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월오름은 묘자리로는 아주 명당이어서 힘 있는 집안들이 서로 묘를 쓰려고 다투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금능농공길 | 금능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정월오름 남쪽에는 금능농공단지가 있다. 농공단지와 연결되는 의미를 반영한 **금능농공길**은 농공단지를 가로질러 월령리로 이어진다. 1980년대에 조성된 금능농공단지는 농기들의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 때문에 이촌향도 현상이 계속되자 농어촌에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농촌의 공업화를 추진했다. 제주에는 금능농공단지를 비롯해 구좌읍 행원리의 구좌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의 대정농공단지가 있다. 현재 약 50여개의 업체가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다.

## 월림로 | 월림리



월림로

마을의 이름을 딴 **월림로**는 월림리 중심을 지나는 길이다. 월림리(月林里)는 한경면 저지리 일부와 상명리 일부를 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월림리의 설촌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금능에 고혜한이란 사람이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냥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한참을 여기저기 헤맸지만 사냥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낙심을 하고 돌아오던 중에 우연히 음부리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이 마른 차에 물을 마시고 잠시 나무 밑에서 쉬고 있으려니 여러 짐승들이 이곳을 찾아와 목을 축이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에 있으면 사냥감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음부리물 인근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들을 사냥을 하고는 그것을 팔아 곧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밭을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는데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고 음부리로 불렸다고 전한다. 그러다 20세기 초에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월림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 명상로/조성로 | 상명리

상명리는 월림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명리 마을을 지나는 **명상로**는 명월리와 상명리를 이어주는 길이다. 중산간 마을인 상명리는 마을에 간남내라고 불리던 하천이 흐르고 있어 수류촌이라고 불렸다. 이후 명월리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 웃명월이라 불리다가, 상명리(上明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상명리는 설촌 당시에 동동, 중동, 서동, 하동 등의 4개 마을이 있었지만 4·3사건 때 마을이 폐허가 되어 버렸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해안가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동동, 중동, 서동, 조성동 등 4개의 마을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중 조성동은 상명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을 지나는 **조성로**는 마을 이름인 조성동의 의미를 반영한 길이다.

### 개오기길/머들길 | 옛 지명을 반영한 길

금능리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을 반영해서 붙여진 길 이름들이 있다. 그 중 명월성로에서 협재로까지 이어지는 **개오기길**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근방의 밭을 가리키던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에는 송물왓 서북쪽에 있는 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개오기길**과 금능남로를 잇는 **머들길**은 머들이라 부르던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제주에서 머들은 일반적으로 돌이 쌓여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화산섬인 제주는 돌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마을 곳곳에는 돌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곳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머들길 주변에도 많은 돌이 쌓여 있던 곳을 머들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